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범위

보험산업은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가 창출되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이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은 과거 전통적인 사업모형을 가진 보험회사가 아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한 기업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보험 소비 경험을 향상하는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사업모형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 최근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인슈어테크 기업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슈어테크 기업을 정의하고 분류한다. 보험산업의 다양한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통틀어 '인슈어테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괄된 정의가 부재하다. 또한, 사업모형에 대한 분류 기준도 기존 연구에서는 모호하여 기존 보험회사와의 관계, 인슈어테크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정의와 분류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 전환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범위를 분석하고 추후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인슈어테크 기업 분류별로 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업·시장·산업의 발전 정도를 평가한다. 인슈어테크 관련 산업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한 기업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얻기 쉽지 않고, 성공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투자액 자체가 발전 정도를 정확하게 투영하지는 않지만, 최근 빠르게 변화·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만큼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서 투자의 흐름을 이용한 척도는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른 주요 인슈어테크 기업의 사업모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2009년 약 1억 달러였던 전 세계 인슈어테크 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가 2022

년 약 100억 달러로 100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팬데믹(Pandemic)을 거치며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에 따라 투자가 늘었다. 산업이 점차 성숙해감에 따라 기업공개도 늘어났고 실패한 기업도 늘어났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성장한 인슈어테크와 실패한 인슈어테크의 사업모형 예시를 살펴보았다.[1)]

본 연구에서는 혁신적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인슈어테크 기업은 보험의 가치사슬에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투자 정보가 CB Insights에 기록된 스타트업이다.[2)] 기존 연구에서는 '핀테크'를 이용하여 인슈어테크를 정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험산업의 관점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개념과 혼용하기도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플랫폼을 보험 가치사슬 중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와 '운영시스템(Operation System)'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Ⅱ장에서 다룬다. '디지털 보험회사'라는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는 대신, 보험업 인가를 받은 인슈어테크를 인가받은 보험회사(Licensed Carrier)로 분류하였다.[3)]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스타트업인 만큼 이들 기업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 혹은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다. 특히 2022년에는 금리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 저성장 우려로 인해 핀테크, 로봇, 바이오 등 인슈어테크를 포함한 혁신기업들의 수익률이 모두 낮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 충격이 산업에 미친 영향은 다루지 않고, 미시적인 개별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정부 정책이나 제도, 거시경제 상황은 그 변화가 매우 빠르고 인슈어테크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1)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기업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므로 기업정보가 제한적임. 따라서 산업 전반을 일반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 해당 기업들 자체를 분석하는 본질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를 하였음

2) 정의는 Ⅱ장에서 다룸. CB Insights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온라인에 공개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임

3) 박소정·박지윤(2017), 손재희(2022)는 디지털 보험회사(Digital Insurance Company)를 보험 가치사슬 전 영역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회사로 소개하고 있음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양한 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우선 연구의 목표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 연구[4]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인슈어테크 부문 초기 사례 소개가 주목적이었던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해당 산업이 본격 활성화된 만큼 인슈어테크 관련 시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분류와 투자 동향을 살펴본다.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정의에서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산업 가치사슬의 일부 혹은 전체를 디지털화하거나 기존 보험상품에 부가가치 상품 혹은 서비스를 추가하는 스타트업을 인슈어테크로 정의한다.[5] Braun and Schreiber(2017)는 인슈어테크를 보험산업의 가치사슬을 디지털화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또한, 손재희 외(2022)는 보험 면허를 보유하고 디지털 보험을 직접 제조·판매하거나 디지털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디지털 보험회사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 가치사슬의 일부라도 자동화 혹은 효율화시키는 스타트업을 인슈어테크로 정의한다.

인슈어테크 기업을 분류하는 체계에서도 차이가 있다. Braun and Schreiber(2017)는 인슈어테크를 BMN(Business Model Navigator)[6]에 따라 55개의 사업모형으로 분류한다. 손재희 외(2022)는 제공서비스, 대상 고객, 설립방식에 따라 15개의 사업모형으로 분류한다. 박소정·박지윤(2017)은 디지털 판매, P2P 보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는 각 기업이 특화한 기술과 보험 가치사슬 내 위치에 따라 사업모형을 분류한다. 이로 인해 직관적으로 사업모형을 이해할 수 있으며, 획정된 시장별로 투자 규모와 흐름, 그리고 시장집중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가진다. 최근 팬데믹(Pandemic)과 더불어 급격히 투자와 발전이 이루어진 산업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그에 따른 새로운 투자 동향을 업데이트한다.

---

4) 박소정·박지윤(2017); Braun and Schreiber(2017); 김규동·김윤진(2021); 권오경(2016)

5) Cappiello(2020a, 2020b), Cortis et al.(2019), Mueller(2018), OECD(2017), Tanguy and Lorenz(2017)도 비슷하게 정의함

6) Who-What-How-Why에 따라 사업모형을 분류하는 방식임

3.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혁신적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인 인슈어테크를 정의하고, 보험종목별, 핵심 기술별,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가 해당하는 가치사슬의 위치에 따라 기업을 분류한다. Ⅲ장에서는 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부 분야별 투자 흐름을 통해 시장에서의 평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전망을 다룬다.